



<14> 영광군수협

굴비 만큼 빛난 경영혁신 전국 명성

조합원 1800명...2009년 이후 5년 연속 출자배당

참조기 자원보존·산지가공시설 조기 명품화 온힘

굴비의 고향 영광, 서해안 수산물 생산지지만 이 곳에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영광군수협(조합장 김영복)이 의젓하게 자리해 있다. '몸짬은 굴비' 하나만으로도 이름값을 높이고 있는 영광군수협은 선진조합의 롤모델로 지금도 비상하고 있는 수협이다.

영광군수협은 지역을 대표하는 수산물 생산하며 잘 나가는 수협이지만, 2009년초까지만해도 존폐위기에 처한 '불량수협'에 불과했다. 공적자금 59억에 따른 신탁경영과 4억여원의 적자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져 있었으며 조합원간 반목과 갈등도 깊어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지금의 선진조합 명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비상에 비상을 거듭한 결과 현재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영광군수협의 선진조합으로의 성공은 조합원·직원과 조합원이 헌신체제가 되어 합심한 결과다. 현재 영광군수협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60여명의 임·직원과 1800여명의 조합원이 안정적으로 조합을 운영해 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 예탁금 1000억원을 달성했으며 2009년 이후 5년 연속 출자배당을 실시하는 등 경영혁신의 롤모델로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높다.

위판사업에서도 탁월한 실적을 내고 있다. 영광군수협은 서해안 꽃게·종하·병어·민어 등 연중위판이 가능하고, 특히 지역 특산물인 굴비를 직접 위판해 방동보관·가공·판매까지 원스톱 유통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10년부터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도 영광군수협이 다른 수협과 차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요건이다.

영광군수협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몸짬은굴비 경쟁력 강화와 영광 굴비 명품화 사업은 앞으로도 수협의 진로를 밝게하는 '먹을거리'로 기대가 크다.

이미 2010년 HACCP을 갖춘 최대 규모의 산지가공시설을 준공하고 조기의 위판에서부터 가공, 포장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임·직원이 직접 발로 뛰면서 판로를 개척했다.

영광굴비의 명성을 잇기 위한 참조기 자원보존에도 힘을 쏟고 있다. 매년 참



김영복 조합장

조기 참조기 방류행사를 갖고, 참조기 자원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참조기들은 1년 6개월 후에 최상의 상품으로 돌아와 지역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굴비상가의 안정적 원료공급에 기여할 것이다.

또 영광군수협은 지난 2011년도부터 조합 및 생산어업인의 자부담으로 저가의 '개량어상자'를 보급·시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목재어상자의 단점을 보완, 효율을 올리고 있다.

영광군수협은 직원 복지와 수익급 지역 환원사업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복리후생을 최우선시하고 공제 성과급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능력을 높였다. 매년 수산인재양성과 면화지원을 위해 수산인 조합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수익급 지역 환원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김영복 조합장은 "지금까지의 성공은 임·직원과 조합원의 각고의 노력으로 빚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짬짬하면서도 고소한 굴비처럼 사랑 받는 조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광군수협은 지난 2010년 HACCP을 갖춘 최대 규모의 산지가공시설을 준공하고 조기의 위판에서부터 가공, 포장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영광굴비 명품화 사업에 전격하고 있다. 굴비 가공공장 작업 모습 <영광군수협 제공>



지난 3일 농협전남지역본부에서 광주·전남농협 수출협의회 조합장들이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농업의 활로개척을 결의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지역 농식품 수출 더 늘립시다” 농협전남본부 수출협의회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중수)는 지난 3일 전남광주농협 수출협의회(회장 두원농협 신장우 조합장)를 개최하고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농협의 수출 주력품목은 파프리카·유자차·배·매론 등으로 9월 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30% 성장한 14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거뒀으며 연말까지 2500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중수 본부장은 “한류 열풍과 농산물 품질개선에 힘입어 전남의 농산물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수출조직을 더욱 규모화·조직화해 전남의 우수 농산품과 과잉 농산품을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수출조직을 더욱 규모화·조직화해 전남의 우수 농산품과 과잉 농산품을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보조금 부당사용 3회면

수급자격 영구 박탈

국가보조금을 3회 이상 부당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영구 박탈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조금 등을 3회 이상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지원 자격을 박탈한다.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원 자격을 잃게 된다.

또한 부정수급자는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조회토록 함으로써 행정착오에 따른 지급 가능성까지 원천 봉쇄한다.

아울러 농업인 등 보조사업자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 참여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단 일공종은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입찰을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비 정산전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아 결과를 공시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과 시공업자가 결탁해 사업비를 부풀려 자신이 부담해야하는 비용까지 대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하순부터 시행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최근 신안에서 열린 ‘외식업 로컬푸드 찾아 팔도 일주’ 전남지역 직판 행사에서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전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 205억원 규모의 식재료 구매를 약정했다. <aT 제공>

aT ‘외식업 로컬푸드 찾아 팔도 일주’ 직판행사

신안서 열려...205억 식재료 구매 약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가 청정 전남지역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기획한 ‘외식업 로컬푸드 찾아 팔도 일주’ 전남지역 직판 행사가 지난 31일 성료됐다.

5일 aT에 따르면 농업과 외식업간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산지 직거래 행사가 지난달 30~31일 신안군 일원에서 이를 간 열렸다.

이번 직거래 행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일반 박람회와 틀을 깨고, 외식업계의 다양한 로컬푸드 구매 욕구를 겨냥한 ‘농업-외식업’ 간 첫 맞춤형 직거래 장터로 평가 받고 있다. aT는 올해 서울, 전남(강진·완도), 경남(창녕·거창·함양), 경북(안동·의성), 강원도(춘천) 등에서 직거래 산지페어를 개최해 전국 단위의 직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7회째 맞는 이번 신안 산지페어는 국내 특급호텔을 포함한 외식업계 우수바이어 60여명과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참가한 전남지역 생산업체 40여개와의 만남의 장을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전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산업체-외식업계간’ 205억원 규모의 식재료 구매 약정 체결 성과를 이룩했다.

김서령 aT 외식진흥팀장은 “이번 전남 지역 산지페어가 지역농업과 외식업계간 상생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면서 “지난 9월 본사의 나주혁신도시 이전 이후 aT는 전남지역과 연계된 사업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부동산 경매

-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배우면서 투자 가능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등 집기 제공 사용료 협의

(주)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투자자 모심

- 1억원 이상
- 담보 제공 가능
- 경매에 관심 있는 분!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 4층-35평, 주택

■ 시세 및 감정가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보 2억에 월270만원 포함)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전체울수리

■ 주인 직매 HP. 010-3605-5000



■ 29평 -12층 주거겸 사무실 양동 하천 방향, 원룸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울수리 시 세-1억원 정도 매매가-7000만원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

오피스텔 매매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77평형-20층 사무실 전용 창가코너, 최상층, 전망좋은 사무실 용도로 전체 울수리 룸 2개 사무실 1개 시 세-3억5000만원 매매가-2억7000만원

문의 HP. 010-3180-8900